

## 허수, 「디지털 문헌학으로 본 20세기 초 현상즉실재론의 한국 유입」에 대한 토론문

2026년 2월 11일 이태훈

허수 선생님의 글은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을 통해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철학과 종교』와 이돈화의 「인내천 요의」 사이의 사상적 관계를 밝힌 글입니다. 제 기억으로 허수 선생님이 이노우에 데츠지로와 이돈화의 관계에 대해 처음 발표하신 것이 약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천도교의 교리를 근대적 사상으로 정리한 이돈화가 실은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영향, 구체적으로는 현상즉실재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천도교 교리를 체계화했다는 허수 선생님의 주장은 근대 학문과 사상의 동아시아적 전유라는 관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본인이 연구하여 밝힌 성과를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다시 검증하고, 또 그 검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시는 허수 선생님의 글을 읽으니 감회가 새롭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공부에 마침표란 없다는 감상입니다.

오늘 허수 선생님의 글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현상즉실재론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그 유입 과정보다도, 그 관계를 분석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과 그 방법을 통해 드러나는 수용의 특징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이돈화의 텍스트가 이노우에의 텍스트 가운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어떤 식으로 변형시켰는지를 디지털 문헌학의 방법을 통해 밝힘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새롭게 드러난 양상의 의미를 검토한 글이라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문헌학에 대해 '지식 소비자' 이상의 경험이 없는 평자로서는 전문적 토론이 다소 어려운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 관찰과 감상으로 토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 선생님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먼저 감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 선생님의 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텍스트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평자가 읽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많지 않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기존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들은 대체로 텍스트를 하나의 군(群)으로 놓고 그 안에서 코퍼스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동아일보』에 나타나는 어떤 개념,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한 논의 지형'과 같은 연구가 그러합니다. 매우 중요한 연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기존의 연구 방법에 의한 성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분석 내용이 상세해지기는 하나,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수 선생님의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 달리 텍스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하나의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인 것입니다. 평자는 무엇보다도 이 점이 기존의 디지털 인문학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 방법이 정교해진다면 근대 사상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지식·사상의 연쇄, 수용, 변용의 문제를 대규모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텍스트를 일일이 읽으며 파악해 왔던 사상과 지식의 연결 관계를 대규모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해명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연구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연구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몇몇 지점에서 설명에 납득이 가면서도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석을 위해 임의적으로 주어지는 기준의 합리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령 이 글에서 두 텍스트의 유사한 문단을 추출하는 기준은 비교대상이 되는 두 문단의 전체 한자어에서 내용적으로 무의미한 한자어를 제외한 공유한자가 10퍼센트를 넘는 경우입니다. 두 텍스트 한자어의 교집합이 적어도 10퍼센트는 넘어야 하고 그 교집합의 한자어는 내용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적절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10퍼센트일까? 8퍼센트나 20퍼센트는 안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유사도 기준은 여타 작업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기준일까? 내용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된 것일까? 우주, 세계와 같은 단어가 과연 범용어이기만 할까? 와 같은 의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의 엄밀함이 연구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연구 설계의 주관성은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 이돈화가 이노우에의 글에서 소거한 부분과 그에 대한 대치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자는 이돈화가 이노우에를 인용한 대부분의 부분에서 핵심 개념인 '철학'이 소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哲學的價値' '哲學系統'이 '哲人'+ '眞理'로 대체된 부분과, '哲學宗教의 特色'이 '理想의 境涯'로 대체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자가 보기에 발표자가 제시한 두 부분은 일대일의 대체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느낌입니다. 문맥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철학적 가치가 인용된 부분에서 이노우에는 '나는 여기서 유물론과 유심론에 대한 실재론의 철학적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철학적 가치란 철학이라는 학문의 측면에서 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돈화는 '네로부터 哲人들이 宇宙를 觀하는 眞理에 잇서 두 가지 큰 潮流가 잇나니 하나는 唯物論이오 하나는 唯心論이라 하는 것이라'라고 하여, 유물론과 유심론이라는 서

로 다른 두 논리가 모두 '철인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진리'의 갈래라고 서술하면서 '철인', '진리'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맥에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의 번역에서 해당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거가 맞겠지만, 문단 전체를 축약하여 전혀 다른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단어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를 소거나 대체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두 번째 문장은 '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철학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이미 전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 '철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그 개념을 전제한 상황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철학' 개념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지적이지만, 그 지적이 어떤 개념이 어떻게 소거되고 대체되었다는 설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위의 질문에 이어지는 것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텍스트의 비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근대 한국 사회의 지식 수용 방식에는 축약이 많습니다. 원텍스트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소개자가 텍스트를 압축하거나 변형시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약이 되면 논지는 비슷할지라도 문맥이 바뀌어 사용하는 단어나 논리 구성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용 단어의 비교로 유사성을 판별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인용의 유사성은 사실상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매우 약한 경향성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경향성의 판단은 다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